

한국 공공도서관명 변화 분석 연구*

- 2015-2020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hanges in the Name of Public Libraries in South Korea: From 2015 to 2020

박 성 재 (Sungjae Park)**

목 차

- | | |
|------------------|------------------------|
| 1. 서론 | 4. 연구 분석 결과 및 논의 |
| 2. 선행연구 | 5. 도서관명 변경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 |
|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6. 결론 및 한계점 |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명의 변화 분석을 통해 도서관계의 주요한 변화를 밝히고자 하였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도서관명을 이용하여 변화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5년 동안의 도서관명 변화 과정 속에서 총 211건의 변화를 발견하였고 이들을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과정을 통해 도서관계에서의 운영주체 논란과 청소년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가, 도서관 주제 특성화, 공모전을 통한 도서관명 결정 등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analysis on changes in the name of public libraries was conducted to identify critical issues in LIS in South Korea. The library names registered in the National Library Statistics from 2015 to 2020 were analyzed, and types of change and its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The findings indicate that 211 changes were reported during five years which were categorized in 7 types. As the characteristics, the changes in library names show the administration agency controversy, the emphasis on library services for young adults, library subject specialization, and citizen participatory name contest.

키워드: 도서관명, 공공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이차자료 분석

Library Name, Public Library,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Secondary Data Analysis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 임.

**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도서관정보문화트랙 부교수

(spark@hansung.ac.kr / ISNI 0000 0004 6338 4953)

논문접수일자: 2022년 7월 19일 최초심사일자: 2022년 8월 1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8월 18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3): 291-312, 2022.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3.291>

*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최근 광주광역시 한 도서관은 기부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이름으로 도서관명을 변경하였다. 일각에서는 2014년 개관부터 사용해오던 이름을 변경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이름으로 기부자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시립 도서관 건립에 거액 기부자의 이름을 도서관명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기부자의 이름을 도서관명에 포함하는 사례는 다른 국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기부에 의한 도서관 건립 시, 기부자 이름을 도서관명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연구범위에 포함하지 않지만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명은 사회적 관계에서 해석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의 명칭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명은 그 자체로 법적 지위를 갖는다. 공공기관의 "인격을 나타내는 표징"(김수진, 2009, 171)이 되는 것이 이름이라는 점에서 도서관명을 변경하는 과정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행정행위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관명 변경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 어떠한 특징들이 발견이 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그 특징들을 통해서 도서관명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논의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도서관명에 대한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에 서 많이 다루어지는 연구는 아니었다. '도서관'

이라는 명칭과 관련된 연구(윤희윤, 1999; 김영심, 2000)나 도서관명을 구성하는 요소분석과 유형화(김영석, 2022), 도서관 성격을 지닌 공간의 이름 관련 담론 분석(조수연, 박성진, 2015)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논문 편수가 적다는 것은 아직 연구되지 않은 분야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하나가 도서관명의 시간적 변화에 대한 연구일 것이다. 변화는 그 동인이 있고 동인은 의도 혹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분석은 사회적 관계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서관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 그 변화에 어떤 사회적 논의가 담겨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물의 명칭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이름 혹은 명(名)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로 정의된다.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를 통해 다른 것과 구별함으로써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정의에서 핵심적인 용어는 '구별'이다. 구별은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음'으로 정의되는데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는 그의 저서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에서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상징자본을 제시하면서 이들 자본을 축적해나가는 과정이 구별짓기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적이고 다양한 잠재적 인식의 공간인 '장(field)' 개념을 통해 장을 구

성하는 행위자들이 자본을 두고 벌이는 갈등관계와 역동성을 분석하였다(이동연, 1997, 316). 그에게 있어 장은 자본을 축적하고 독점하고자 하는 행위들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갈등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의 이름은 단순한 시설물을 부르는 말이 아닌 구별을 통해 다양한 자본을 축적하여 독점하려고 하는 행위 중의 하나이다. 고속철도 역명 중의 하나인 천안아산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간의 분쟁은 이러한 갈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해당 역은 아산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천안시 인근이라는 점에서 두 지자체 간의 치열한 이름 경쟁이 벌어졌다(최용규, 오정석, 2004). 역명을 통해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이는 경제적 효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두 지자체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갈등을 빚었던 것이다(김수진, 2009). 앞서 부르디외가 언급한 장이 공공시설 명칭과 관련하여 펼쳐지고 경제자본, 문화자본, 상징자본을 획득하기 위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활동들이 갈등의 양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지자체의 명칭권은 자치권의 하나로 사람의 이름이 인격권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듯 지자체의 명칭은 그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8. 3. 27. 2006헌라1). 명칭에는 공공시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명칭을 사용하고 그 명칭은 해당 시설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명칭은 의미를 갖는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61조 제1항에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

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의 명칭을 포함한 관리에 있어서 최소한 조례에서 규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의 개정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된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도가 명칭에 반영이 되고 갈등의 과정을 통해 명칭이 변경되거나 갈등을 봉합하는 방향으로 명칭이 결정된다. 공공시설물 중의 하나인 공공도서관의 이름 또한 지역적 대표성과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표면화된다고 할 수 있다. 최종 결정된 도서관명은 법적 지위를 갖고 그 변경은 조례의 변경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 행위이다.

2.2 도서관명에 대한 연구

도서관 명칭, 즉 도서관이라는 기관을 명명할 때 사용하는 이름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도서관장 전문직화에 반대한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의 명칭 변경 문제(윤희윤, 1999)나 장난감도서관으로 대표되는 책이 없는 혹은 책 대신 다른 물건을 대여하는 곳에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이종문, 2003), 국공립대학도서관에서 도서관을 학술정보관이나 문헌정보관 등으로 변경한 경우(곽동철, 2012) 등 관중을 불문하고 도서관 전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김영심(2000)은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명칭 변경의 문제는 대학에서 도서관 관련 전공의 학명을 도서관학에서 문헌정보학으로 바꿈으로써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명칭 변경문제는 도

서관의 기본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도서관'이란 무엇인가라는 원론적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서관에 대한 원론적 접근을 통한 명칭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 도서관으로 등록된 도서관들의 이름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한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도서관명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국가 도서관통계시스템(이하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대표적으로 김영석(2022)의 도서관명의 형태학적 연구를 들 수 있다. 통계시스템은 전국의 공공도서관의 일반 현황 및 대출 및 정보서비스 등의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도서관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명 연구를 위한 자료가 된다. 1,000여 개가 넘는 도서관의 명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각 개별도서관의 이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영석(2022)의 연구에서도 2020년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1,172개 공공도서관 이름을 기본 유형과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도서관명을 짓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국의 도서관이 아닌 하나 혹은 일부 도서관을 대상으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조수연, 박성진(2015)의 담론분석을 적용한 '지혜의 숲' 명칭 분석 연구가 있다. 담론은 "일상적인 담화,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담론들, 지식으로서의 체계를 갖춘 언설들, 나아가 때때로 과학적 명제들까지 포괄하는 말"(푸코, 2011)로 정의된다. 최근에는 포괄적인 의미로 "모든 언어행

위를 통해 형성된 모든 관계"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조수연, 박성진, 2015, 175). 따라서 담론분석은 한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텍스트의 언어적 형태뿐만 아니라 텍스트가 생산된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고 이를 사회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의미를 분석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조수연, 박성진(2015)은 도서관 명칭이 단순한 사람이거나 사물을 일컫는 이름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이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역할은 사회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 다르게 본 연구는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이름을 수집하여 데이터 세트를 만들었지만 그 형태학적인 도서관명 구조를 분석하기 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도서관명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의도로 변경이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깊이 있게 다루는 담론분석의 방법론을 적용하기 보다는 도서관명 변화를 유형화하고 특징을 분석하였다.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3.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도서관명의 변화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도서관명 변경의 현황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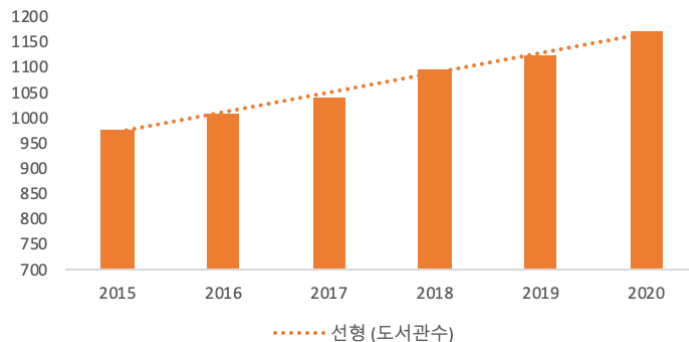
- 연구문제 2. 도서관명 변경은 어떻게 유형화 할 수 있을 것인가?
- 연구문제 3. 도서관명 변경에 나타난 도서관계 주요한 논제는 무엇인가?

3.2 연구 방법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도서관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도서관 현황은 <그림 1>과 같다. 2015년 도서관은 978개관으로 조사되었고 2020년에는 1,172개관의 도서관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간 동안 194개의 도서관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매년 30여 개 도서관이 통계시스템에 등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 주제는 도서관명 변경이라는 점에서 신규로 건립되는 도서관의 이름이나 기존 도서관의 이름에 나타난 특징 분석이 아닌 기존 명칭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2020년에 신규 등록된 도서관은 명칭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시스템에 등록

된 도서관 정보를 내려 받아 이를 도서관명 변화 분석을 위해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도서관별로 해당년도에 어떤 이름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도별 도서관명을 추출하였다. 추출방식으로 도서관마다 부여된 도서관코드를 사용하여 2020년 데이터와 2019년 데이터를 결합하였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는 도서관코드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서관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도서관코드를 부여하였다. 2019년 도서관명에 부여된 도서관코드를 2018년 도서관명에 부여하는 방법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청주목령도서관과 시흥시진로도서관은 부여된 도서관코드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들 도서관에는 다른 도서관과 겹치지 않는 임의의 10자리 코드를 부여하였다. 도서관명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도서관명을 가진 도서관은 엑셀파일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도서관 코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찾아서 수정하였다. 갈산도서관, 서구어린이도서관, 해오름도서관, 느티나무도서관, 양산도서관은 통계시스템 상에서 동일명칭을 사용하는 도서관으로 나타났고 이들 도서관코드를 원본 코드북에서 찾아 수정하였다.



<그림 1> 연도별 공공도서관 수(2015년-2020년)

도서관코드 부여과정을 통해 생성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엑셀파일에서 연도별 도서관명을 추출하여 도서관명의 변경사항 확인을 위한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였다. 김영석(2020)의 연구에서는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이름이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름과 다른 경우가 있었고 이름 각각을 도서관 사서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본 연구는 도서관명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이름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4. 연구 분석 결과 및 논의

4.1 도서관명 변경 현황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공공도서관 중 도서관명을 변경한 경우는 총 21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평균 40여 건의 도서관명 변경이 있었고 도서관명 변경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8년으로 나타났다. 전체 도서관 중에서 3.9% 정도가 도서관명을 변경하였고 대부분의 도서관은 기존 도서관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도서관명 변경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도

서관에서의 변경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이들 도서관을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135건의 도서관명 변경이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변경 건수의 63.98%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변경이 많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일괄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1〉 참조).

도서관명 변경을 지역별로 조사했을 때, 도서관명 변경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는 서울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광주, 울산, 전남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동안 도서관명의 변화를 보인 도서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도서관명 변경을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이고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해당 연도에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의 일괄적인 변경을 포함한 경우이다.

4.2 도서관명 변경 유형별 분석

211건의 도서관명 변경 사례를 기반으로 유사한 사례들을 묶는 분류작업을 실시했고 총 7가지 유형으로 그 특징을 구분했다. 분류는 변경에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표 1〉 도서관명 변경 현황

연도	도서관수 (전체)	명칭변경 도서관수(A)	변경비율 (%)	교육청소속 도서관수	교육청 소속 도서관 비율(%)
2016	1,010	25	2.48	22	84.00
2017	1,042	60	5.76	38	63.33
2018	1,096	78	7.12	66	84.62
2019	1,123	19	1.69	6	31.58
2020	1,172	29	2.47	3	10.34
합계	5,443	211	3.86	117	63.98

〈표 2〉 지역별 도서관명 변경 현황

지역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서울	23	6	1	7	6	43
부산	0	0	0	0	2	2
대구	0	0	1	0	0	1
인천	0	0	0	2	4	6
광주	0	0	0	0	0	0
대전	0	0	0	3	0	3
울산	0	0	0	0	0	0
세종	0	1	1	0	1	3
경기	2	9	11	2	4	28
강원	0	1	0	0	1	2
충북	0	0	13	0	0	13
충남	0	12	19	2	1	34
전북	0	1	7	1	1	10
전남	0	0	0	0	0	0
경북	0	27	0	0	2	29
경남	0	3	24	2	7	36
제주	0	0	1	0	0	1
합계	25	60	78	19	29	211

〈표 3〉 유형별 도서관명 변경 현황

유형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1	22	37	64	6	2	131
2	3	9	11	7	17	47
3	0	1	0	0	6	7
4	0	8	1	0	0	9
5	0	1	0	1	2	4
6	0	4	2	0	0	6
7	0	0	0	5	2	7
합계	25	60	78	19	29	211

변경의 중요한 특징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유형 간의 상호배타성이 보장되기 보다는 중첩되는 부분, 즉 한 사례가 여러 개의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도서관명 변경 분석을 통해 구분된 유형은 다음 7가지와 같고 다음 절에서 각 유형별 사례와 특징을 기술하였다(〈표 3〉 참조).

- 1 유형: 건립·운영 주체 표기(교육청)
- 2 유형: 건립·운영 주체 표기(지자체)
- 3 유형: 특정 용어 삭제
- 4 유형: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 5 유형: 도서관 신관 건립으로 인한 변경
- 6 유형: 지역명이 아닌 이름 사용
- 7 유형: 특성화 주제 사용

4.2.1 건립·운영 주체 표기(교육청)

도서관명 변경 사례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이름 변경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례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운영주체인 '교육청'을 도서관명에 포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체성과 차별화를 나타내는 단어인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다. 먼저 운영주체를 도서관명에 포함하는 경우는 전체 129건 중에서 106건에서 나타났다. 그 사례로 서울의 남산도서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으로 변경하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라는 운영주체를 도서관명에 포함시켰다. 다른 예로 경북도립안동공공도서관은 2017년 '경상북도교육청 안동도서관'으로 도서관명을 변경하였다. 운영주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서로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데,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와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을 붙이는 경우가 있었다. 도서관명 변경이 있었던 7개 교육청 소속 도서관 중에서 6개 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명을 사용한 반면에 충청남도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은 교육지원청명을 포함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아산도서관은 충청남

도아산교육지원청아산도서관으로 도서관명을 변경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교육'을 도서관명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자체 소속 도서관과 구분을 짓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발견된 지역은 경기도와 충청북도 도서관에서 나타났다. 경기도는 기존 도서관명에서 운영주체가 모호하게 표현된 '도립'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교육도서관'으로 변경하였다(이상복 외, 2013). 예를 들면, 경기도립김포도서관은 경기김포교육도서관으로 도서관명을 변경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특징은 도서관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기존 도서관명인 경기도립발안도서관의 경우에는 향남읍의 전통적인 이름인 '발안'을 사용하였는데 도서관명 변경 당시 행정구역이 화성시라는 점에서 '경기화성교육도서관'으로 변경을 하였다. 교육도서관을 사용한 다른 예인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운영주체인 교육청명을 포함하지 않고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도서관으로 도서관명을 변경하였다. 예를 들면, 증평도서관은 증평교육도서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표 4〉 참조).

〈표 4〉 교육청 소속 도서관명 변경(1)

변경년도	지역	기존 도서관명	변경 도서관명
2016	서울	도봉도서관 외 21개관	서울특별시교육청도봉도서관 외 21개관
2017	경기	경기도립김포도서관 외 8개관	경기김포교육도서관 외 8개관
	경북	경상북도영주공공도서관 외 26개관	경상북도교육청 영주도서관 외 26개관
2018	충북	단양도서관 외 10개관	단양교육도서관 외 10개관
	충남	당진도서관 외 19개관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당진도서관 외 19개관
	전북	장수공공도서관 외 7개관	전라북도교육청장수도서관 외 7개관
	경남	함양도서관 외 23개관	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외 23개관

교육청 소속 도서관 중에는 교육청이라는 운영주체를 표현하거나 '교육'이라는 특화주체를 표기한 경우와는 반대로 지역명만을 사용하여 단순한 형태로 도서관명을 변경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제주도의 서귀포학생문화원도서관은 '학생문화원'을 삭제하고 서귀포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9년에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기존 도서관명인 평생학습도서관을 일반 도서관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경의 예로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은 신탄진도서관으로 변경하였다(〈표 5〉 참조).

4.2.2 건립·운영 주체 표기(지자체)

교육청 소속 도서관명 변경 사례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경우는 건립·운영 주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경우에 교육청이라는 운영주체를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도서관명 변경이 이루어지듯 지자체 소속 도서관의 경우에도 '시립' 혹은 '군립' 등의 건립·운영 주체를 추가하고 있다. 양산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양산이라는 지자체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도서관 이용에 이용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양산시립으로 명확히 그 구분을 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양산에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으로 양산도서관이 있다는 점에서 이와 차별화된 도서관명을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지자체명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아산시의 경우에는 2017년에 기존 도서관명에 포함된 '아산시립'을 지자체명을 사용한 '아산시'로 변경하였다. 예를 들면, '아산시립둔포도서관'은 '아산시 둔포도서관'으로 도서관명을 변경하였다.

더 나아가 건립·운영 주체인 지자체명을 포함하지 않고 지역명을 사용하여 도서관명을 표시하는 사례가 있다. 2016년에 송파구거마도서관 정보센터는 '거마도서관'으로 도서관명을 변경하면서 송파구라는 지자체명을 삭제하고 도서관 정보센터라는 모호한 명칭을 대신하여 '도서관'을 사용하였다. 2017년 경상남도 김해시 소속의 일부 도서관들은 도서관명에서 '김해'라는 지역명칭을 삭제하였다. 그 예로 '김해시립진영한빛도서관'은 '진영한빛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방향은 김영석(2022)의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역명과 '도서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도서관명의 방향성과 같다고 할 수 있다(〈표 6〉 참조).

4.2.3 특정 용어 삭제

2020년 영등포구는 기존 도서관명에 포함된 '정보문화'를 빼고 지역명만으로 구성된 도서관명으로 변경하였다. 선유정보문화도서관은 선유도서관으로,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은 문래도서관으로,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서 대림도서관으로

〈표 5〉 교육청 소속 도서관명 변경(2)

명칭 변경년도	지역	기존 도서관명	변경 도서관명
2018	제주	서귀포학생문화원도서관	서귀포도서관
2019	대전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신탄진도서관
		대덕구안산평생학습도서관	안산도서관
		송촌평생학습도서관	송촌도서관

〈표 6〉 건립·운영 주체 삭제

명칭 변경년도	지역	기존 도서관명	변경 도서관명
2016	서울	송파구거마정보센터	거마도서관
2017	경남 김해	김해시립진영한빛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
		김해시립화정글샘도서관	화정글샘도서관
		김해칠암도서관	칠암도서관
2020	부산	부산북구디지털도서관*	만덕도서관
		수영구도서관 망미분관*	망미도서관

* 만덕도서관과 망미도서관은 2021년 개관한 도서관이지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2020으로 나타나있어 연구에 포함함.

각각 변경하였다. ‘정보문화’라는 용어는 2000년대 초반 디지털과 정보가 중요한 단어가 되면서 이를 도서관명에 포함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등의 도서관 건립시 ‘정보’와 ‘정보문화’ 등의 용어가 도서관명에 포함되었는데 영등포구의 사례는 김영석(2022)의 연구에서 제안한 도서관명 변경의 사례로 기존 도서관명의 ‘정보문화’의 의미가 도서관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삭제된 용어의 다른 예로 도서관의 규모를 나타내는 ‘작은’이라는 단어이다. 2017년 서울시 양천구의 목마작은도서관은 목마도서관으로 도서관명을 변경하였다. 목마작은도서관은 그 면적이 543.14㎡로 도서관법에 제시된 공립 공공

도서관 건물면적 규정인 264㎡ 이상이라는 점에서 작은도서관이 아닌 일반 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관’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일반 도서관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달성분관은 2019년 대구광역시립달성도서관으로 도서관명을 변경하였다. 2020년까지 도서관명 데이터에 ‘분관’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분관을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그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본 연구의 주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새로 건립되는 도서관에 분관을 포함하지 않고 기존 도서관 분관의 경우에도 분관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도서관명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표 7〉 참조).

〈표 7〉 도서관명 변경(특정용어 삭제)

명칭 변경년도	지역	기존 도서관명	변경 도서관명
2017	서울	목마작은도서관	목마도서관
	서울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선유도서관
2020	서울	문래정보문화도서관	문래도서관
	서울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대림도서관
	서울	상립마을작은도서관	구립상립도서관
	강원 춘천	춘천시립분관서면도서관	춘천서면도서관
	경남 마산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지혜의바다분관	경상남도교육청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4.2.4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정부조직이나 지자체는 산하 조직에 대한 개편을 주기적으로 단행한다. 산하조직 중의 하나인 도서관 조직 또한 이러한 조직개편에 따라 운영주체가 바뀌게 되면서 운영주체를 포함하고 있는 도서관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천안시의 경우, 2017년 조직개편에 따라 천안시정보교육원을 문화도서관사업소로 변경하게 되었고 천안시 7개 도서관이 기존 도서관명에서 ‘정보교육원’이 ‘문화도서관사업소’로 변경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학습관은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으로 변경되었고 2018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운영주체를 도서관명에 포함하는 것은 조직개편이라는 환경 변화에 따라 도서관명이 바뀌게 된다는 점에서 고려해야할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름은 기관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름의 잦은 변경은 정체성 확립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한다. 따라서 조직개편에 따른 도서관명 변경을 야기하는 4유형은 도서관명 결정에 있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표 8〉 참조).

4.2.5 도서관 신관 건립으로 인한 변경

2018년 성북구는 아리랑정보도서관을 아리랑도서관으로 변경하였다. 근거리에 아리랑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되면서 도서관 간 연계와 이용자들의 이용편의성 측면에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평택시립 배다리도서관이 2018년 개관하면서 평택시립도서관의 본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1992년부터 기존의 본관인 평택시립도서관은 리모델링과 함께 재개관하면서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비전동의 명칭을 차용하여 ‘평택시립 비전도서관’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2002년 개관한 임실군립도서관은 2020년 새로운 도서관이 개관할 때까지 임실군을 대표하는 도서관 역할을 담당했다. 2020년 5월 새로운 임실군립도서관이 준공되면서 기존 임실군립도서관은 그 위치한 지역의 이름인 오수면의 이름을 따서 임실군립오수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2019년 안동시립중앙도서관 건립이 착공되고 2010년 11월 준공이 되었다. 준공을 앞둔 2020년 7월 기존의 안동시립도서관을 안동시립응부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표 9〉 참조).

〈표 8〉 조직개편에 따른 도서관명 변경

변경년도	지역	기존 도서관명	변경 도서관명
2017	충남 천안	천안시정보교육원 중앙도서관	천안시문화도서관사업소 중앙도서관
	충남 천안	천안시정보교육원 아우내도서관	천안시문화도서관사업소 아우내도서관
	충남 천안	천안시정보교육원 신방도서관	천안시문화도서관사업소 신방도서관
	충남 천안	천안시정보교육원 쌍용도서관	천안시문화도서관사업소 쌍용도서관
	충남 천안	천안시정보교육원 두정도서관	천안시문화도서관사업소 두정도서관
	충남 천안	천안시정보교육원 성거도서관	천안시문화도서관사업소 성거도서관
	충남 천안	천안시정보교육원 도솔도서관	천안시문화도서관사업소 도솔도서관
201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교육학습관

〈표 9〉 도서관 신관 건립으로 인한 도서관명 변경

명칭 변경년도	지역	기존 도서관명	변경 도서관명
2018	서울	아리랑정보도서관	아리랑도서관
2020	경기 평택	평택시립도서관	평택시립 비전도서관
	전북 임실	임실군립도서관	임실군립오수도서관
	경북 안동	안동시립도서관	안동시립옹부도서관

4.2.6 지역명이 아닌 이름 사용

일반적으로 도서관의 명칭은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명을 사용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도서관 명칭에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고 도서관명을 통해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 곳인지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명 변경 연구에서 이러한 지역명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가 조사되었다. 도봉1동어린이도서관은 도봉구 내의 다른 도서관의 이름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했고 2017년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명인 ‘무수골’을 사용하여 도서관명을 변경하였다. 또한 도봉구는 2018년 도봉어린이문화정보관을 이용자 설문문을 통해 ‘도봉아이나라도서관’으로 변경하였다. ‘아이나라’는 도서관명칭이 변경되기 전부터 기존 도서관명칭의 애칭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친숙함이 도서관 명칭변경 설문에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특별시 중구는 2018년 1

월 중구 관내 3개 도서관(중구구립도서관, 구립신당도서관, 손기정문화센터 정보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공모전의 결과로 2018년 9월 중구구립도서관은 가온도서관으로, 중구구립 신당도서관은 어울림도서관으로, 손기정문화센터 정보도서관은 손기정 작은도서관으로 변경되었다. 2개의 공공도서관은 가운데를 뜻하는 ‘가온’과 조화를 뜻하는 ‘어울림’이라는 우리말로 변경되었다.

구로주민전용도서관은 관내 초등학교 내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도서관이지만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2018년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학교 건물인 ‘온누리관’의 명칭을 차용하여 ‘구로구립 온누리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대구광역시립대봉도서관은 대구시 중구 대봉동에 위치해 있었는데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신암중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리모델링을 통해 대봉도서관을 이전하고 도서관명을 바꾸었다. 신

〈표 10〉 도서관 명칭 변경(지역명 대신 다른 이름 사용한 경우)

명칭 변경년도	지역	기존 도서관명	변경 도서관명
2017	서울	도봉1동어린이도서관	무수골도서관
2018	서울	중구구립도서관	가온도서관
	서울	중구구립 신당도서관	어울림도서관
	서울	도봉어린이문화정보관	도봉아이나라도서관
	서울	구로주민전용도서관	구로구립 온누리도서관
2019	대구	대구광역시립대봉도서관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

암동이라는 지역명을 사용하는 대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민주운동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도서관명을 2.28기념도서관으로 정했다. 도서관명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2.28민주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함으로써 특화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 있다.

4.2.7 특성화 주제 사용

최근 공공도서관의 특성화는 중요한 논제 중의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공공도서관의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10개의 특성화 지원 도서관을 선정하고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담아 도서관명에도 특성화 주제가 포함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양천구는 4개의 공공도서관과 1개의 작은도서관 명칭을 특화주제를 반영하여 변경하였다. 신월디지털도서관은 신월음악도서관으로, 목마도서관은 목마교육도서관으로, 해맞이도서관은 해맞이역사도서관으로, 개울도서관은 개울건강도서관으로 각 도서관의 특화주제를 사용하여 도서관명을 변경하였다.

경남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은 '영어'라는 주제 특성화에서 어린이도서관으로 보다 포괄적인 어린이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명칭을 변

경하였다. 기존의 영어도서관은 부모들의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건립되었지만 도서관의 목적이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제 특성화와는 다른 형태로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특성화가 도서관명 변경에 나타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이용자 특성화의 사례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으로 방향성을 잡고 시작한 '기적의도서관'이다. 2020년 공주시는 월성공공주택지구 내에 '기적의도서관'을 건립하고 기존 공주시 시립도서관 강북관을 이전하였다. 이전 과정에서 도서관명을 공주시기적의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정 이용자 그룹을 특성화한 사례로 충청남도 아산시어린이도서관은 청소년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서관명에 '청소년'을 포함하였다(〈표 11〉 참조).

5. 도서관명 변경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

도서관명 변경에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가? 김영석(2022)의 연구에서 일반적인 공공도

〈표 11〉 도서관명 변경(특성화 주제를 포함)

명칭 변경년도	지역	기존 도서관명	변경 도서관명
2019	대구	대구광역시립대봉도서관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
	서울	신월디지털도서관	신월음악도서관
	서울	목마도서관	목마교육도서관
	서울	해맞이도서관	해맞이역사도서관
	서울	개울도서관	개울건강도서관
2020	충남 공주	공주시 시립도서관 강북관	공주시기적의도서관
	충남 아산	아산시어린이도서관	아산시꿈샘어린이청소년도서관
	경남 사천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	사천시어린이도서관

서관명으로 제안하는 지역명과 도서관의 결합으로 된 형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일부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7가지 유형의 도서관명 변경에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5.1 건립·운영 주체 표기

도서관명 변경 유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유형은 1유형인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건립·운영 주체 표기에 대한 사항이다. 다음으로 지자체 소속 도서관의 건립·운영 주체 표기와 관련된 2유형이 많이 나타났다. 위 두 유형은 전체 도서관명 변경의 84.36%를 차지할 정도로 도서관명 변경에 있어서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지만 두 유형에 나타난 도서관명 변경의 목적이 운영주체를 명확히 표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두 유형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명 변경의 목적은 운영주체를 도서관명에 제시함으로써 교육청 소속이라는 정체성 강화와 이용자에게 운영주체를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함이다(이상복 외, 2013). 2012년에 진행된 강원도교육청의 도서관 명칭 변경 공모전에 공모의 이유로 '교육주체들의 교육청 소속기관에 부합하는 명칭 변경 필요성 제기, 지방자치단체와 평생교육 역할 분담 및 기관 정체성 확보 필요, 각급학교 독서교육 지원 및 교육문화 활동 공간으로 변경 요구'를 제시했다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 운영체계에 있어서 가장 큰 조직은 지

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동일한 지역에 서로 다른 두 주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를 구분하고자 하는 의도가 도서관명 변경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차별화와 특성화 측면에서 도서관명 변경은 도서관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략적 선택의 목적과 함께 도서관의 목적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도서관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을 '평생교육'이라는 특정 목적에 한정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교육' 도서관으로의 변경이 평생교육만을 담당하기 위한 기관을 표현하는 명칭은 아니지만 특성화 도서관 논의에서와 같이 특화 서비스로의 방향성을 드러내고 교육의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지자체 소속 도서관에서도 나타나는데 운영주체를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는 '공중'을 위한 변화라기보다는 도서관 운영 주체간의 분리정책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라는 운영주체의 구분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책임소재의 문제를 엄격히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리정책은 분리된 집단의 정체성과 차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도서관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중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공도서관 개념에는 그 운영주체를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분리하지 않고 있고 이용자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이라는 운영주체를 염두에 두고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분리정책의 방향성은 이용자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운영주체들 간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명 변경을 통해 차별화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의도를 담아 운영주체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을 지양하고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 사이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이다. 도서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지만 적어도 출판되는 정보자원인 도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제공해 줄 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별 도서관 예산과 인력으로 증가하는 출판물을 지역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도서관 간 협력을 통해 공동장서개발과 공동 이용이 이루어진다면 부족한 자료구입 예산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체제 이원화의 문제는 운영주체의 일원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기보다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상호협력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운영체제 이원화의 문제가 도서관명을 통한 차별화로 나타나기 보다는 혼재된 도서관 명칭을 통일하고 공유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다양화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2 청소년

도서관명 변경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청소년’이 도서관명에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성별이나 연령별 차이를 두지 않는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철학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 중의 하나인 도서관은 이용을 위한 것이고 모든 독자는 그의 책이 있다는 것으로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도서관인 윤리선언에서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무”로 사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도서관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도서관명에 ‘청소년’이라는 특정 연령대를 명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도서관 서비스의 주된 대상을 청소년으로 하고 이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과거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도서관이 만들어진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민간영역에서 활성화된 어린이도서관은 2003년 기적의도서관을 시작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김지완, 정영경, 2019).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고 많은 어린이도서관의 건립을 이끌었다. 어린이도서관과 같이 청소년도서관은 청소년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을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도서관명에서 ‘청소년’을 포함하는 경우는 총 9개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서울시 소재 강북청소년문화도서관은 2001년 개관한 국내 최초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이다. 이후 2008년 강서푸른들청소년도서관과 2016년 부산진구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개관하였다. 2017년에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남

구 청소년도서관이, 춘천시에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이 개관하였다. 연이어 2018년에는 서울시 종로구에 어린이청소년국학도서관이, 2019년에는 충주시에 충주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2020년에 남원시에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개관하였다. 2006년 개관한 아산시어린이도서관은 2020년 아산시꿈샘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청소년'을 특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도서관명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원시 한아름도서관은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매년 청소년을 특화한 도서관이 건립·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계에서 청소년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2〉 참조).

청소년과 유사하게 '학생'을 도서관명에 포함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을 도서관명에 포함한 기관의 대부분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로 나타났다. 이들 도서관 대부분은 '도서관'이라는 명칭 대신에 '학생회관'이나 '학생교육문화원' 등을 사용하였다. 최근 이들 도서관 중 일부는 제한적 이용을 나타낼 수 있는 '학

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도서관명을 변경하고 있었다. 그 예로 경상북도 학생문화회관은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으로 도서관명을 변경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경우도 '학생'을 삭제하고 교육문화원으로 통일해서 도서관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5.3 도서관 주제 특성화

도서관 특성화는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인력, 장서의 차별화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활동'(서은경 외, 2015)이다. 특성화는 다른 도서관과의 차별화를 통해 도서관은 물론 지역의 특색을 살림으로써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는 브랜딩 전략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98년 특화도서관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3년 동안 진행 후 중단하였다. 이후 2017년 특화도서관 시범사업이 다시 시작되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노영희, 박우정, 신영지, 2018). 이러한 특성화 방향성을 이룸에 담은 도서관의 사례가 도서관명 변화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표 12〉 도서관명 변경(청소년)

연도	구분	지역	도서관명(변경 전)	도서관명(변경/신규)
2001	개관	서울		강북청소년문화도서관
2008	개관	서울		강서푸른들청소년도서관
2016	개관	부산		부산진구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7	개관	광주		남구 청소년도서관
	개관	춘천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2018	개관	서울		어린이청소년국학도서관
2019	개관	충북 충주		충주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20	개관	전북 남원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
	변경	충남 아산	아산시어린이도서관	아산시꿈샘어린이청소년도서관

〈표 13〉 도서관명에 ‘학생’을 포함하는 도서관

연도	구분	지역	도서관명(변경 전)	도서관명(변경/신규)
1964	개관	서울 중구	한국학생도서관	
1967	개관	광주 서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1987	개관	충북 제천	제천학생회관	
1988	개관	대전	대전학생교육문화원	
1994	개관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1998	개관	전북 정읍	정읍학생복지회관	
2001	개관	광주 서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2008	개관	전남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2016	폐관		대구학생문화센터	
2017	변경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2018	변경	대구	대구광역시립대봉도서관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
	변경	충북 청주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변경		충북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교육문화원
	변경	제주	서귀포학생문화원도서관	서귀포도서관

24개 도서관이 도서관명에 특성화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분석했을 때, 2000년대에는 8개 도서관이, 2010년대에는 16개관이 특성화 주제를 도서관명에 포함하고 있었고 점차 그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이 브랜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성화 주제를 도서관명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관을 차별화하고 브랜드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성화 주제에 있어서 지역 특색, 환경, 문학, 예술, 영어, 과학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들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은 도서관에서 이름에 포함하고 있는 주제는 ‘지역 특색’으로 흑산자산문화도서관, 금산인삼고을도서관, 여수이순신도서관 등이 그 사례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차별화를 위해서는 다른 도서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 특색 혹은 지역 자료를 특성화 주제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차별화 뿐만 아니라 지역적 정체성과 브랜딩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많은 도서관에서

특성화 주제로 선정하고 장서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표 12〉에서 소개되었듯이 서울시 양천구는 도서관별 특성화를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특성화 주제를 도서관명에 포함하고 있다. 2022년 6월 기준, 음악, 교육, 역사, 건강, 음식, 문학, 영어 등으로 지자체 내 도서관을 특성화하고 있다. 지자체 도서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들이 모두 동일한 장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도서관 특성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장서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맞물려 도서관 특성화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양천구와 같이 도서관명에 직접적으로 특성화 주제를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특성화를 시도하는 지자체 도서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양시는 2015년 13개 도서관의 특성화를 정비하여 4개 특성화 도서관으로 재정비하였다(서은경 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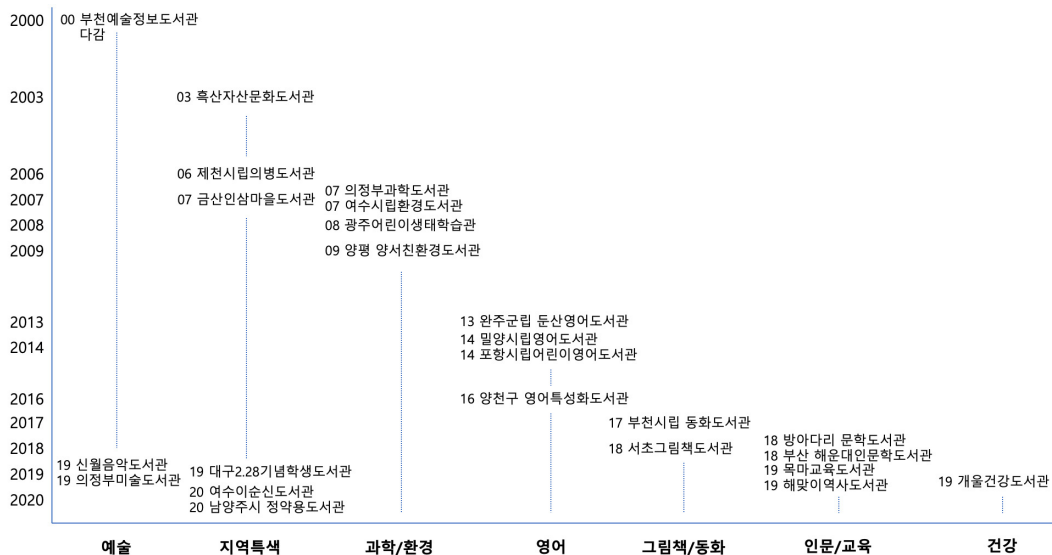
이름에 특성화 주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어린이’를 도서관명에 포함시키는 것과 유사한 의도를 가진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도서관을 통해 어린이 특화 장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리면서 도서관을 홍보하는 것과 같이 특성화 주제를 포함한 도서관명은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이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명확하게 인식시켜준다. 이러한 방향성이 옳은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특성화’가 현재 도서관계에서 중요한 논제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5.4 도서관명 공모전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물의 명칭은 지역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된다. 특히, 명칭이 부

르디외가 언급하고 있는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상징자본을 축적하는 수단이 될 경우에는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명칭 결정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공공영역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단계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도서관명의 유형을 분석한 김영석(2022)의 연구에서 세부 유형으로 31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가지 이름을 선정하는 작업은 의사결정권자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정당성 확보의 방안으로 도서관명 공모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앞서 제시된 3가지 주요한 특징은 도서관명의 실제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모전’은 도서관명을 결정하는 방식과 관련한 특징이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다. 그렇지만 연구기간 동안 나타난 주요한 특징이라는 점에서 주요한 특징의 하나로 제시한다.



* 도서관명 앞 두자리 숫자: 개관년도 혹은 도서관명변경 연도

〈그림 2〉 특성화 주제를 포함하는 도서관명(연도별)

앞서 언급했듯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서관명 공모전을 실시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평택시립 비전도서관의 경우, 평택시립도서관의 중앙관이 새롭게 건립되면서 기존의 평택시립도서관의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택시 지명위원회 소속 위원의 자문과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평택시립 비전도서관'으로 도서관명을 변경하였다. 다른 예로 2018년 서울시 중구청은 구립도서관 3곳(중구구립도서관, 구립신당도서관, 손기정보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공모전을 실시했다. 공모전 심사 기준에 공모전을 개최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중구청은 독창성, 대중성, 상징성을 중심으로 공모전에 응모된 이름을 평가하였다. 독창성은 지역성과 도서관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점을, 대중성은 간결하고 친근한 이름으로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상징성은 지식문화 중심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표현하는 지를 평가하였다. 평가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성과 지역 주민, 도서관 역할 등 도서관명과 관련된 주요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수원시망포글빛도서관은 2019년 개관을 준비하면서 도서관명을 공모하였다. 도서관명으로 '망포도서관'을 제외한 공모전에서 최종 망포글빛도서관이 선정되었고 건립·운영 주체인 수원시를 포함하는 명칭으로 2020년 '수원시망포글빛도서관'으로 변경되었다. 공모전 과정에서 서울시 중구청과 유사하게 지역성을 반영하고 간결하고 친근감을 강조하는 이름을 공모하였다. 최종 당선작에 이러한 두 요소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데 '망포'라는 지역명과 '글

빛'이라는 따뜻함과 친근함이 도서관명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성을 중심으로 선정된 '평택시립 비전도서관'과 시민들에게 친근한 '어울림도서관', 지역성과 친근함을 모두 포함하는 '망포글빛도서관' 등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도서관 이름을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도서관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도서관명을 선정하는 과정이 단순하게 이름을 결정하는 단계가 아닌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공동체 형성 단계 중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6. 결론 및 한계점

6.1 결론

도서관명은 단순히 지역의 이름을 사용하여 만들어지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의도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도서관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명 변경의 사례를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도서관명 변경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들과의 차별화와 교육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도서관 특성화가 도서관계에 주요한 주제로 등장하게 되면서 도서관명에도 반영되고 있었다. 또한 공공행정에서 주민 참여가 주요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도서관 명칭 변경에 있어서도 공모전 형식을 빌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도서관명을 새롭게 짓거나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다. 도서관명은 지명과 도서관을 결합한 명칭이 아닌 사회적 아젠다를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아젠다가 바뀌면 이를 반영하여 도서관명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민 참여가 강조되면서 도서관명의 변경은 더욱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도서관명 변경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들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후속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 주제의 하나로 도서관명 변경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5년 동안의 변화에 나타난 특징을 간략하게 기술하였지만 해방 이후 도서관 성장과정에서의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명칭 변경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모전은 시민의 의견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역할 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공모전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도서관명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도서관이 사회통합과 협력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2 한계점

본 연구는 도서관명 변경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고자 했던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으로 인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에 사용된 도서관명 데이터는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는 실제 이름과 다른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평택시립청북도서관의 경우 2015년 개관 당시에는 청북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2016년 운영주체를 포함하는 '평택시립 청북도서관'으로 도서관명이 변경되었다. 평택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들은 이미 '평택시립'을 도서관명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15년 등록 당시의 오류라고 판단된다. 이렇듯 본 연구는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도서관명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분석의 오류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곽동철 (2013). 대학도서관장에게 바란다. 제15차 도서관장 회의. 2013년 4월 18-19일. 제주: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 김수진 (2009).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권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9(4), 169-189.
- 김영석 (2022).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이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2), 255-276.
- 김영심 (2000). 도서관 명칭 변경에 대한 일고찰.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 김지완, 정연경 (2019).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연구: 1945-200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95-119.
- 노영희, 곽우정, 신영지 (2018). 도서관의 특성화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한 도서관 특화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3), 245-270.
- 미셸 푸코, 이정우(역). (2011). 담론의 질서. 서울: 도서출판 새길.
- 서은경, 박성재, 이호신, 송경진. (2015). 고양시 도서관 장서개발정책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 윤희운 (1999). 한국 공공도서관의 진로: 명칭변경 음모를 중심으로. 1999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4-28.
- 이동연 (1997). 문화연구의 새로운 토픽들. 서울: 문화과학사.
- 이상복, 배경재, 류주현, 박옥남 (2013). 교육청 공공도서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경기도교육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183-209.
- 이종문 (2003). 장난감도서관의 정체성 및 운영 실태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75-98.
- 조수연, 박성진 (2015). 도서관 명칭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담론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1), 171-198.
- 최용규, 오정석 (2004). 공공시설의 명칭결정과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23(0), 17-29.
- 헌법재판소 2008. 3. 27. 2006헌라1.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Su-Yeon & Park, Sung-Jin (2015). Social discourse analysis on title and role of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1), 171-198.
- Choi, Yong Kyu & Oh, Jung Seok (2004). A study on the decision of public facilities' design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Korea Real Estate Academy Review, 23(0), 17-29.
-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08. 3. 27. 2006HeonRa1.
- Foucault, Michel, Lee, Jung-woo(translator) (2011). The Order of Discourse. Seoul: Saegil Publishing.
- Kim, Jee-Wan & Chung, Yeon-Kyoung (2019). A historical study on the children's libraries in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1945 to 2002.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4), 95-119.
- Kim, Soojin (2009). Eine studie über das namensrecht der kommunalen gebietskörperschaften.

- Local Government Law Journal, 9(4), 169-189.
- Kim, Young-seok (2022). Study on the name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2), 255-276.
- Kim, Young-sim (2000). A Study of the Transformation of Name's those of Librarie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ept.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 Kwack, Dong-chul (2013). Expectations to Directors of University Libraries. 15th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April 18-19, 2013. Jeju: Korean Private University Library Association.
- Lee, Dong Yeun (1997). New topics in Culture Research, Seoul: Munhwagwahaksa
- Lee, Jong-moon (2003). Analysis on identity and operation of toy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75-98.
- Lee, Sang bok, Bae, Kyung Jae, Ryu, Ju Hyun, & Park, Ok Nam (2013). Future development for public libraries in office of education: focusing on public libraries in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3), 183-209.
- Noh, Younghee, Kwak, Woojung, & Shin, Youngji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library specialization based on case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3), 245-270.
- Seo, Eunkyung, Park, Sungjae, Lee, Hosin, & Song, Kyungjin (2015). Final Report on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Goyangsi.
- Yoon, Hee-Yoon (1999). Future direction of Korean public libraries: focusing on the conspiracy of the changes of name. Proceedings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4-28.